



점프업허브 내부 전경.

초보 소상공인 성장 돕는다 구로에 '보육 공간' 문 열어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유사 업종 소상공인간 협업 도모
'원스톱 성장패키지' 등 맞춤 지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소상공인 전문 보육 공간인 '소상공인 점프업허브'의 문을 9일 열었다고 밝혔다.

점프업허브는 일반적인 공유오피스와 달리 창업 5년 미만의 소상공인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협업을 돕는 플랫폼이다.

서울 구로구청 맞은편 전 애경산업 사옥을 리모델링한 점프업허브는 지상 6층, 지하 2층, 연면적 약 1800평 공간을 리모델링해 사무·공용·편의공간으로 꾸몄다.

사무공간은 1인석 공유오피스와 다인실(4~7인실)로 구성했으며 층마다 유사업종의 소상공인을 배치해 입주사

끼리 자연스럽게 협업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용공간은 각종 회의실과 첨단교육장, 포토스튜디오, 동영상 스튜디오, 편집실, 공용작업공간, 탕비실, OA실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춰 최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편의공간엔 영상휴게실, 수유실, 여성 휴게실 등을 들여놓았다.

점프업허브 공간 중에서 눈에 띄는 곳은 1층과 2층을 거대한 계단으로 연결한 라운지다. 오픈 공간인 이곳은 평상시엔 모두가 이용하는 휴게 라운지이지만 각종 모임, 행사 등의 네트워킹을 진행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점프업허브는 입주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원스톱 성장 패키지'를 비롯해 일반 소상공인에게도 최적화된 맞춤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中企 특허소송 돈 걱정 마세요” 저이자로 적립금 5배까지 대출

특허청-기보 '특허공제' 출시

부금 이자율 시중銀보다 높아
'선대여 후분할 방식'으로 진행
“中企에 ‘금융 안전장치’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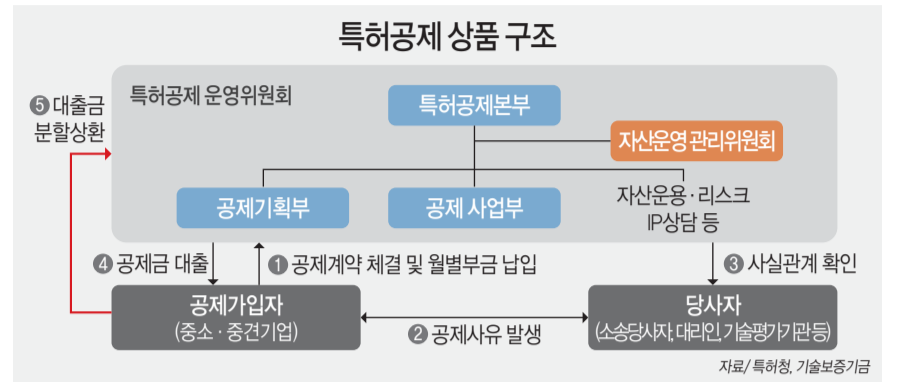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이 '특허공제' 상품을 본격 출시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특허 등 분쟁시 2%의 낮은 금리로 적립 부금의 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부금에 대한 은행 적금보다 높은 2%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특허청과 기보는 9일 특허공제 운영 센터를 열고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상호부조형태인 특허공제는 가입기업들의 적립금을 기반으로 자산을 운영하며, 대출은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선대여 후분할방식'으로 진행한다.

가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부금은 월 3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최고 5억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월 납입부금은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운영기관인 기보 관계자는 “부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했고,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낮게 책



정해 가입기업들의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지난 5~7월 사이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4.89% 수준이다.

이 상품은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지식재산대출)하려는 경우엔 적립 부금의 최대 5배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대출은 가입자대출신청 후 소송당사자, 대리인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금액을 살피지원한다.

또 가입 기업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땐 적립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적용금리는 3.5% 수준이다. 다만 대출신청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아울러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보의 보증 이용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 각종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지식재산패스트보증 지원한도 우대(2억 → 3억원) ▲보증료율(0.2%p 인하) ▲금융기관 특별출연금협약보증 지원대상에 추가 ▲기술신탁이용시 수수료 등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디자인파크개발이 1호 가입을 시작으로 아이티아이즈, 아이디노, 닥터웰, 와이파인텍 등 10곳이 이날 출범식에 함께 참여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공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주는 금융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특허공제가 특허로 무장한 우리기업들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세액공제 도입, 예산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스타일쉐어, 고객 목소리 반영한 ‘어스’ 론칭

사용자 콘텐츠 기반 커머스 스타일쉐어는 유저 크리에이티드 브랜드 ‘어스(US by StyleShare)’를 론칭한다고 9일 밝혔다.

어스는 스타일쉐어가 서비스 출시 8주년을 맞이해 만든 유저와 함께 만든 기본 제품 패션 브랜드다. 스타일쉐어는 ‘유저 간 소통을 기반으로 성장한 커뮤니티’라는 서비스 특징을 살려, 어스의 제품 기획부터 홍보에 이르는 전 단계에 유저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스타일쉐어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한 사용자 설문조사와 품평회를 바탕으로

기본 제품군의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했다. 스타일쉐어는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베이직 아이템인 ‘쥬티(무지 긴소매 티)’를 54종으로 선보였다. 어스의 쥬티는 3가지 기장(크롭·미디움·롱), 3가지 핏(슬림핏·레귤러핏·오버사이즈 핏), 6가지 색상으로 구성했다.

어스의 광고 모델 7명도 모두 스타일쉐어 사용자다. 스타일쉐어는 일반인을 모델로 기용함으로써 다양한 일반인들의 패션 콘텐츠로 성장해온 서비스라는 정체성을 드러낸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키친에이드 ‘파스타 롤러·커터세트’ 출시

키친에이드는 스탠드 믹서에 연결해 사용하는 장치인 ‘파스타 롤러 및 파스타 커터 세트’(사진)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파스타 롤러 및 커터 세트’는 생 파스타 면을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믹서 액세서리다. 스탠드 믹서의 동력 공급 장치에 장치를 연결해 반죽기의 기능을 확장한다.

파스타 롤러는 밀가루와 달걀 등을 혼합한 반죽을 15cm 폭의 파스타 시트로 만든다. 8단계 두께 조절을 통해 라

자나 면, 포피야 피, 전병 피, 만두피, 수제비 등을 만들 수 있다.

파스타 커터 세트는 다양한 두께와 넓이의 스파게티 면을 만든다. 파스타 롤러로 파스타 시트를 잘라 다양한 폭의 파스타면을 만들 수 있다. 파스타 커터 세트는 얇은 면을 자르는 카펠리니 커터, 넓은 면을 자르는 라자네트 커터와 세척 솔 등으로 구성돼 있다. 파스타 커터 세트는 롤러와 별도 판매된다.

/배한님 기자

웅진코웨이, ‘IFA 2019’서 유럽·중동 공략 박차

공기청정기 등 혁신제품 21종 전시

웅진코웨이는 오는 1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9’에 참가해 유럽과 중동 시장 공략을 더욱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

웅진코웨이는 이번 ‘IFA 2019’에서 ▲공기청정기 12종 ▲정수기 8종 ▲의류청정기 1종 등 총 21종의 혁신제품을 내놓았다.

전시 품목 중 참관객과 바이어들에게 큰 주목을 받은 제품은 공기청정기다. 앞서 웅진코웨이는 스웨덴에 진출해 현지 최대 가격 비교 사이트인 프리스약트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기청정기 판매량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이탈리아, 독일 아마



오는 1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9’에 마련된 웅진코웨이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웅진코웨이

존을 통해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고 있다. 6월부터는 업계 최초로 Amazon Dash Replenishment(소모품 자동보충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웅진코웨이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시장에는 공기청정기를 내세우고, 독일, 스페인, 쿠웨이트, 요르단 등에는 RO멤브레인 필터를 적용한 정수기를 앞세워 유럽과 중동 시장을 맞춤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IFA 2019’ 인기 제품은 ‘멀티액션 공기청정기 AP-1516D’로 이 제품은 공간과 상황에 맞춰 깨끗한 공기 흐름을 제공하는 에어 다이나믹스 기술을 적용해 기존 공기청정기와는 차별화된 제품이다. 여기에 더해 ‘미니 멀티액션 공기청정기’도 처음 선보였다. 미니 멀티액션 공기청정기는 유럽인들의 거주환경에 맞춰 10평형 공간에 어울리는 제품으로 내년 1·4분기내에 현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자이글, ‘IFA 마켓’ 참가… 해외 판로 확대

‘IFA 2019’ B2B 전시회

자이글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글로벌 마켓’에 참가,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펼쳐지는 IFA 글로벌마켓에서 자이글은 대표 제품인 자이글 롤링룩스, 자이글 프로,

자이글 파티 등 9개 제품을 내놨다.

IFA 글로벌 마켓은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IFA의 부속행사로 기업간거래(B2B) 중심의 전시회다. 바이어와 딜러들이 공급업체, OEM, ODM 등의 업체들과 원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신설됐다.

첫 해 행사의 경우 24만 명의 방문객

과 45억 유로의 상담계약을 기록하며 유럽 최대의 구매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자이글은 해외 시장 확대에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는 세계 최대 소비자 전시회인 일본 동경 국제 기프트쇼 2019에 참가해 제품을 선보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크게 화제가 된 태국 브랜드K 행사에서도 자사 제품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